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3월 26일 ( 제1194호 )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 과로는 자살행위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래서 과욕, 과로, 과식, 과속은 자살행위나 진배없다.

나는 요즘 과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3주 전, 주일 3부와 4부 은사집회까지 인도하며 축하까지 하고는 늦은 밤 기도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세 번 세미나를 인도했다. 그것도 한 번에 3~4시간씩. 세미나가 끝난 뒤에라도 쉬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바로 상경해서 회의도 주재하고, 밤늦은 시간에 장례식장까지 찾았다. 분명 무리였다. 그러다 휘청했고 다리를 다쳤다.

병원에 누워있자니 생각이 깊다. ‘그래, 장거리는 단거리 뛸듯 하면 안 되는구나. 조급과 무리는 동색(同色)이구나.’

38년을 돌아보자니 나는 쉬지 않고 최고의 스피드로 달렸던 것 같다. 대강, 대충은 내 스스로 용납되지 않기에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 더욱이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는 꿈을 쉰 후에 쉬는 것이 죄인 양 생각하고 나를 더욱 몰아세웠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 혈떡이는데 더 뛰라고 채찍질할까. 가로막으며 저지하지 않으실까. 이번 일이 그렇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나를 가로막고 제동을 거신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달리기보다 뛰벽뛰벽 걷기로 했다. 숨을 혈떡이며 뛰기보다는 천천히 걸으며 달리면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달리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으며, 달리면 느낄 수 없던 것들을 느끼며 가야겠다. 여유를 가지고, 쉽도 가지며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야겠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빨리 뛰다 도중 하차하는 것보다, 빨리 뛰다 병나는 것보다 뛰벽뛰벽 걸어서 완주하는 편이 낫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만 앞으면 됩니다. 저처럼 당한 후 깨닫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기세요. 천하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니까요.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한 사회나 국가의 상벌제도는 그 사회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다못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떤 기준으로 칭찬하고 그에 따라 물질적으로 보상하며, 때로 징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알 수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학생들에게 상을 주거나 징계하는 기준을 보면 그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 하나님이 원

급제도를 마련하셨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 그러나 이것은 천국 입성의 기준일 뿐이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물론 이 구원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켜내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13). 바로 이 끝까지 견디는 힘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

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의 길에 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목사님이 갓은 환란과 핍박을 견디며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난의 길을 견디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날 주님과 한 상에 앉아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스런 보상을 늘 꿈에 그리기 때문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30). 현재의 그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는

No Cross, No Crown

고난없는 영광은 없다

이호석 목사

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다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 삼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담아내신 것이다. 그에 따라 그 기준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복을 내리셨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는 또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아주 단순명료한 법이다. 이 명확한 상벌제도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초를 마련하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세계에서 누릴 지위를 결정짓기 위해 상

급제도를 만들어놓으신 것이다.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마16:27).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천국의 상급을 통한 보상은 철저히 이 땅에서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평가하시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천국의 상은 이 땅에서의 조건과는 무관하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학식이 높다고, 부를 가졌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이런 조건들은 일말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 더구나 목사, 사모,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가산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과 믿음의 선친

족히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낙심, 좌절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목사님께서 늘 성전 일을 맡은 자들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하시는 이유다. 어떤 자리에서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반드시 그날 그 시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25:21) 하는 천국 보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9:27~30)



#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라고 말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고, 스테반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천국에서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스테반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누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교하셨습니까? 죽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 꿈과 목적이 있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

세상의 어느 단체든지 상벌제도가 있고,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이치가 적용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우수상, 모범상, 개근상 등이 있고, 회사에서도 성과급과 진급이 있고, 스포츠계에서도 메달과 순위대로 포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마련해놨을까요? 상 주려고, 돈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일 잘해서 성과 내라고, 열심히 운동해서 기록을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축복, 최고의 축복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이고, 둘째는 상급인데, 영생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롬10:10). 정말 쉽지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상급의 기준은 다릅니다. 100% 우리의 행위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하나님은 왜 그러신대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 괴로웠는데 적어도 천국에서는 공평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하십니까? 여러분, 늘 말해왔지만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그나마 이 땅에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과 형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한 번 정해진 계급에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땅, 살아있을 때 일한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전도자가 말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상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9:4~5).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얇은 냄비 같지 않습니까? 은혜받았을 때야 방방 뛰지만, 그게 바로 식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힘들어하고, 나태해지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우릴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급제도를 뒤서 그것을 에너지 삼고, 동력 삼아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힘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상급제도를

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늘 줄 알고요, 저도 세상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평생 안식년 한 번 못 누리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을 넘어 노예로 자원하며 살까요? 그날에 받을 상 때문입니다. 저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30)는 큰 상을 원합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심판하는 수준의

상급이 대충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수석 졸업생 아

무나 합니까? 그 상을 바라보기에 힘이 넘치고 지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번 시험에서 1등 하면 아빠가 너희 반 전체에게 파티해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녀석이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더니 진짜 1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파티를 해줬습니다. 상이란 게 이런 겁니다.

이시대 목사 손자 녀석이 ‘성경을 다 읽으면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 해줄게.’라는 할아버지 말에 밤늦도록 성경을 읽어서 4개월 만에 성경 2/3를 읽었다지 않습니까? 녀석이 원하는 것은 핸드폰인데 벌써 받을 핸드폰 모델까지 다 정해놓고 밤이 되도록 성경을 읽는다지 않습니까? 상이란 것이 어린 아이도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뛰는 것이 유치하거나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태릉선수촌에서 맹렬히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올림픽과 국제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기 위

해서입니다. 그에 따른 포상과 대우가 대단하거든요. 그게 저급한 일입니까? 목적인 바만 바라보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19:27)라고 여쭙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속물 같은 놈~, 지옥 갈 너희를 구원해줬으면 감지덕지해야지, 뭘 더 원해?”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

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

를 위하 여 집 이 나 형제나 자매 나 부모나 자식이 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19:28~29)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고 수없는 때를 맞고 자지 못하고 주리며 헐벗으면서도 그 길을 간 것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빌3:14)을 바라봤기 때문이었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난 것도 그가 받을 상 때문이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히11:26).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자 정의감에 불타 싸움에 임하기도 했지만, 아울러 승리했을 때 받을 혜택도 생각하고 쟁겼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삼상17:26). 여러분, 이처럼 상을 바라보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얼마어마한 상급과 대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에 선수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위협을 당하고, 만물의 찌끼

처럼 여김을 받으면서도 담대히 이 길을 가는 것은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히10:33~35).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 플러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히12:2), 즉 상을 바라보셨기에 넉넉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가 당신 앞에 복종케 되는 권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시고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빌2:9~11).

봉사하는 분들이 겨울에도 새벽부터 종일 봉사하고, 주일이면 성가대가 종일 수고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상을 알기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졸업장만 받지 말고 우등상을 받는 자가 되자

그런데 실컷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 놓고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상이 없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다 떠벌이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장님, 이사장님’ 하니 으쓱했지요. 그런데 나중 꿈에 보니까 제 하늘창고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공력을 시험하십니다. 진실되게 했는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는지 다 판단하고 상을 주십니다(고전3:12~15). 요즘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합니까? 눈이 자주 가자미눈처럼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교회 일에 미적거립니까? 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상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열 고을을 다스리고, 다섯 고을 다스리고, 더는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상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늘 상기하세요. 내 생활패턴을 하늘의 상에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그날 상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공짜가 없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15:58).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 SVB 뱅크런사태

미국 서북부 샌프란시스코 인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SVB(실리콘밸리은행)는 주로 초기 단계의 벤처회사들, 그리고 동업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지난 40년간 영업을 유지해온 특화된 상업은행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단계의 벤처 회사라도 성장잠재력만 있으면 큰 규모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특히 코로나 기간 중 대규모 자금을 유지한 고객사들은 현금을 SVB에 예치하였고, SVB는 초저금리가 지속된다 확신하고 가장 안정성이 높은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상승하는 금리로 인하여 기존 고객들의 예금인출이 가속화되자 유동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장기국채를 현금화하였는데, 그러나 높아진 금리로 인하여 평가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나 파산한 것이 SVB 뱅크런사태의 전말입니다. 미 연준은 중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및 주택담보부채권(MBS)을 할인 없이 액면가 전액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은행 단기간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전하여 추가적인 사태 방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5,000개가 넘는 중소 은행이 산재하여 있고, 특히 BTFP의 경우 금리가 매우 높아 은행으로서는 손

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명확하므로 향후의 전망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양적 완화, 그리고 2020년 COVID19 사태로 천문학적인 통화량을 시장에 직접 투입하였지만 회수가 되지 않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산업공동화 현상은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매년 최고치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을 지속하고 목표한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미국 국채의 실질 가치는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구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미국은 단독 초강대국으로 등극하였고 캐나다, 유럽까지 동반하며 유사 이래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을 실현하였지만, 예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는 사항을 전부 합법화한 결과, 경제는 물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명기에서 금하는 사항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규제하는 중동과 러시아는 안정적인 정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깨어 기도하여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것만이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 To Be Succeeded ::

##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이 말씀을 아들, 딸과 함께 읽다 보니 지난 일이 생각났다. 내가 한참 어그러진 길을 걸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또 일상생활에서 성경구절들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말이다. 생각지도 못한 안팎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내게, 하나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스스로 분쟁하는 곳은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와 같은 말씀으로, 또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할 때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벧전3:10)와 같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다. 마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듯했다. 어느 수요일예배 전, 무거운 바윗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제 머리부터 깊은 속까지 성령님께서 찢어 찢개시고 만져주세요.’ 그날 찬양이 끝나

고 통성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빛나는 칼이 내 머리와 가슴을 관통하는듯하더니 놀려있던 가슴이 뻥 뚫리고 폭포수 같은 기도가 쏟아져 나오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다시는 교만하지 말아라.’ 주님은 링 위에 나를 세워두시고 나의 심장과 폐부를 면밀히 살피셨고(렘17:10), 내 입의 말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셨던 것이다(삼상2:3). 처음엔 혼내시는 건가 싶어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제 는 안다. 징계와 회초리는 우리를 올바르게 장성시켜서 예수의 분량에까지 이르 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고 서운하고 아파도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입성까지 무사히 완주케 하는 안전장치이며, 또한 말씀대로 경주한 이들에게 주실 상과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 나에게 고난과 함께 삼키기 어려운 말씀이 올 때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성장발판 삼아 영·혼·육에 진보와 성장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묵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국진 사모

## 할 수 있다, 도전하라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을 이룬다.”라는 아랍 속담이 있다. 신앙인은 태풍이 있어서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다. 한 번도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이다(잠24:16).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성공자이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돕지 않으신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 사고를 통한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도전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은 영광을 맛볼 것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교훈하신다(약5:17).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과 수많은 사건들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에 맞서며, 세상을 향해 도전하라! 목사님 또한 늘 교훈하신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성경의 수많은 그도, 그녀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

김상욱 목사



:: 낮은 울타리 ::

## 지금은 전도할 때

우리 교단은 코로나로 인해 잃은 영혼, 상한 영혼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월드프레이즈 집회를 발판 삼아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어려워하는 동역자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던 영혼도 붙여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막막하 시거나 전도할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까?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2년 동안 타고 다닌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핸들 열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핸들 높이 조절기 옆에 버튼이 하나 만져졌습니다. ‘이런 게 왜 있지?’ 하고 놀려보니 그것이 바로 핸들 열선 버튼이었습니다. 그 황당함도 잠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수정아, 방금 네가 겪은 것처럼 전도하고자 하면 네가 보지 못했던 영혼도 내가 다 보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한창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발견하

지 못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것처럼, 전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면 준비했던 영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바로 ‘중꺾마’라는 말인데, 풀어서 설명하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프로게이머의 인터뷰를 기자가 요약하여 표현한 말로서,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임했던 선수의 팀이 최종적으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월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욕먹는 것은 잠깐, 후회는 평생이다.” 저는 이 정신이 전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욕먹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후회는 평생 갑니다. 그러므로 핏박이 와도, 욕을 먹어도 꺾이지 말고 전도합시다. 우리 교단은 지금 4부 은사집회, 해외 집회, 청년 찬양집회 등 많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전도합시다! 아멘!

장수정



# 산 위의 동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지도 않은 북풍한설을 만나기도 한다. 그해 봄은 내게 그런 시간이었다. 하루아침에 맞이하게 된 남편의 죽음은 내게 연습 없는 시련을 가져왔다. 아이들과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구직란에 이름을 올리고 여기저기 일할 곳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거반 오십이 다 되어 가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때 시작하게 된 일이 건물 청소였다. 남들보다 조금 이른 아침을 시작해야 하고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더러운 일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그리 나쁘진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 처음 해보는 청소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몸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다. 이제껏 남편 그늘에서 그래도 나름 편

하게 살다 더럽고 께은일을 하려니 아마도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던 것 같다. 사람들이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귀천이 있어서 하는 소리라 생각했다. 그런 소리에 예민했던 것을 보면 스스로를 무척이나 초라하게 여겼던 것 같다. 그래서일까. 누군가 “무슨 일 하세요?” 하고 물으면 선뜻 대답도 못한 채 주눅이 들곤 했었다. 설상가상으로 일했던 곳의 직원들 태도 또한 처음에는 좋지 못했다. 반말 섞인 거친 말투에, 위아래 없는 무례한 태도는 나를 더욱 비관하게 만들었다. 이리될 줄 모르고, 젊은 시절 안 일하고 나태하게 산 자신이 참 한심했고, 잘못 산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생각에 자신이 무척이나 미웠다.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곤 했었고, 그런 내게 주님은 늘 말없이 ‘네 일에 충성하라.’고만 하셨다. 주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려 애쓰고 있을 무렵 그 사건이 터졌다. 총무부 차장님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새로이 입사한 직원은 나뿐이었고, 당연한 듯 내가 의심받는 눈치였다. 목걸이를 보았냐고 직접 추궁을 받게 되었을 땐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 억울하기도 했고 너무 비참하기도 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비관된 생각들이 마구 터져 올

라왔다. 모든 의지가 꺾이는 기분이었다. 자연 나를 대하는 직원들의 냉기도 더해졌다. 그때도 울며불며 매달리는 내게 주님은 말없이 ‘네 일에 충성하라.’고만 하셨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오기가 생겼다. ‘난 그런 사람 아니란 걸 꼭 보여줄 거야.’라고 다짐했다. 결국 목걸이는 찾지 못했고 다음 날로 건물 이곳저곳에 보란 듯이 많은 CCTV가 설치되었다. 그렇게 시간은 느리고도 빠르게 흘러 일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무척이나 더웠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한 남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내게 음료와 빵을 건넸다. “여사님, 쉬엄쉬엄하세요. 커피도 한 잔씩 하시면서요.” 하면서. 다음 날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예쁘게 담긴 간식 접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다. 그들은 어느새가 변해있었다. ‘어이, 아줌마!’라고 부르던 호칭은 어느새 ‘여사님’으로 바뀌어 있었고, 무례하기 짝이 없던 그들의 반말은 어느새 공경어로 바뀌어 있었다. 무거운 걸 들고 지날 때면 들어주기도 하고, 휴가 다녀온 직원은 나를 위해 선물을 사오기도 했다. 어느새 나는 그들의 ‘동료’가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동료에는 더욱 깊어져 내가 우연한 사고로 갈비뼈를 다쳐 일을 할 수 없

게 되었을 때 빛을 받았다. 다친 몸으로는 일을 할 수 없어 퇴직하려는 나를 위해, 두 달간의 휴가를 주기 위해 직원들은 나를 대신해 청소를 해주었다. 회사는 내게 휴식기간에 월급까지 지급해주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무척이나 신기한 일이다. 그런 그들과 나는 신학공부를 위해 퇴직할 때까지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다. 나는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운 듯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말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들은 나의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서 나에게 대한 신뢰를 쌓았다. 그리고 애써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그들은 조용히 내게 설득되었다. 주님께서 왜 내게 ‘말없이 네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는지 이제는 안다. 이처럼 진실을 알리는 일은 명쾌한 논리로도 아니요 화려한 화술로도 아니다. 그저 성실하고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서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난 산 위의 동네이고, 세상을 깨우는 빛이다(마5:14).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 삶의 자세가 바로 설득이고 전도다.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겠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성하며 기다리자. 그러면 우리 등 뒤에 서 계신 분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여주신다.

박영임 생도



튀르키예를 돕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22494

농협 1379-01-001903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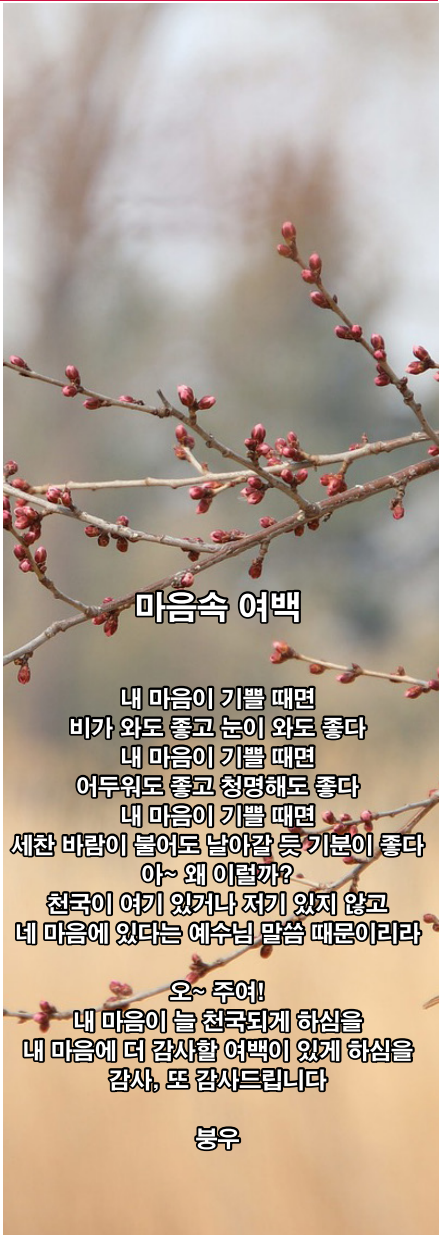
##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광고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가끔 인터뷰나 강의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매번 거절해왔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쑥스러웠기 때문이죠. 카피라이터로서 아이디어 내고 발표하는 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디까지나 말은 업무에 한해서고, 그 외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자기 피알이라던가 본인 홍보 쪽에는 관심도, 재주도 영 없어요. ‘나는 내향인이니까’라는 말은 제게 여러모로 좋은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타고난 성격을 이유로 들면 다들 이해해주었거든요. 이십 대 때는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부대끼더라고요. 쑥스럽고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이라는 말 뒤에 숨으면 참 안락하고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내향적인 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격 뒤에 숨지 말자고 결심한 건 작년에 <가능한 불가능>이라는 책을 출간하고부터였습니다. 저자의 할 일은 책을 쓰고 끝이 아니라 쓴 책이 많은 사람에게 가닿도록 스스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치 영업 사원처럼 말이죠. 그것은 천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저자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던 일까지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모교에서 100분간 강연을 했고, 독자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90분간 진행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혼자 앞에서 말해야 했기에 부담도 크고 스트레스도 심했죠. 그러니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울 리 없었고요. 그럼에도 어떤 일이든 결국 마감날이 있고, 그날이 되면 어떻게든 해내고야 마는 세상 모든 직장인처럼 저도 해냈습니다. 북토크를 마치고 이를 뒤 제 책을 읽은 어느 온라인 교육 담당자로부터 ‘에세이 쓰기’ 강의를 제안받았습니다. 좋은 기회인 건 알았지만, 시중에는 이미 유명한 작가들이 내놓은 글쓰기 책이나 강의가 많아서 제가 무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며 거절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다른 이유도 있었죠. 90분간 하는 북토크조차 스트레스받으며 준비했던 제가 온라인 수업이라니요. 영상 촬영해야 하는 강의라니요. 저는 누굴 가르칠 낯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 누군가에

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회라는 건 자주 찾아오지 않으니 왔을 때 잡으라고요. 네가 준비되었을 땐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용기를 끌어모아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강의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몇 달간 괴로워하며 강의를 준비했죠.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새벽까지 자료를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목차를 만들고 내용을 채우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며 매진했습니다.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며 약속한 마감날까지 하나씩 하나씩 꾸역꾸역해나갔죠. 지난주에 강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덕분에,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새롭게 얻었죠. 성격 밖의 일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뒤에 숨어 있어서 몰랐을 뿐이죠. 올해는 입에 달고 살았던 ‘내향적인 성격’이라는 말을 줄여보려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신은혜



마음속 여백

내 마음이 기쁠 때면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다  
내 마음이 기쁠 때면  
어두워도 좋고 청명해도 좋다  
내 마음이 기쁠 때면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듯 기분이 좋다  
아~ 왜 이럴까?  
천국이 여기 있거나 저기 있지 않고  
네 마음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라

오~ 주여!  
내 마음이 늘 천국되게 하심을  
내 마음에 더 감사할 여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봉우